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 출범

오늘 제40대 제주도지사 취임... 4년 임기 시작
취임식 후 4·3평화공원 참배하고 민생현장 방문
내일 첫 간부회의 주재... 추경 등 주요현안 주목

민선 9기 제주도정이 1일 출범한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서 도정 정책과 제주 현안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 관련기사 3면

위 당선인은 1일 오전 9시 도청 탐라홀에서 제40대 도지사 취임식을 열어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위 당선인은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간단히 마무리한다. 이후 장영사, 국립제주호공원,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정부 라인 한 축인 비서실장과 비서, 의

사 결정을 지원할 정책·정무수석을 임명한다.

위 당선인은 취임 하루 뒤인 2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청다오 항로와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나올지 주목된다.

위 당선인은 이 중 제주~청다오 항로에 대해선 “물류비를 낮추고 수출을 늘리려는 상상력은 좋았지만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마찬가지로 제주형 BRT에 대해서도 “도민이 불편하면 개선해야 하고,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힌 만큼 두 정책 모두 대안을 찾을 때까지 중단할 것을 공식 지시할 수도 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 당선인은 도지사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과 함께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민생 살리기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해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당선인이 민선 8기 도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채무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2차 추경 재원을 지방채 발행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통교부세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총당하거나 집행 부진 사업 예산을 구

조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추경안 제출 목표 시점은 7월 10일로 예정됐다.

위 당선인은 이달 내에 조직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 당선인은 민선 8기에서 특별보좌관으로 불렸던 전문임기제 공무원 직책 명칭을 수석으로 변경한 상태다. 또 정부부지사 소관 사무 조정과 일부 국 통제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위 당선인이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7월 정기 인사는 8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이며, 지난 4년간 민선 8기를 이끌었던 오영훈 지사는 30일 오후 2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연안 연산호 붕괴, 고수온 등 때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세계 최초 원인 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2024년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에서 발생한 집단 붕괴 현상을 ‘슬럼프(Slumping, 주저앉음)’이라 학술적으로 명명하고 세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환경단체 ‘파란’이 포착한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KIOST가 분석에 착수했으며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다.

연산호 군락 집단 붕괴의 원인으로는 이례적인 고수온과 저염분 환경이 지목됐다. 연산호 군락이 위치한 서귀포 해역은 지난 2024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평균 수온과 가장 낮은 평균 염분을 동시에 기록했다.

특히 양쯔강에서 유입된 대규모 담수의 영향으로 50일 이상 장기간 저염분 환경에 노출돼 삼투압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염분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연산호의 체내로 저염수가 유입되는데 체내 수압에 의해 형태를 유지하는 연산호의 특성상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구조 유지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연산호의 슬럼프 과정을 ▷몸이 비정상적으로 부풀 ▷줄기가 힘없이 처짐 ▷몸통이 거꾸로 매달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 ▷녹아내리듯 형태가 부서짐 등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김태훈 박사는 “천연기념물이자 해양보호구역인 제주 연산호 군락의 손실은 해양생태계의 교란뿐만 아니라 어업과 관광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상 생태현상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기반의 해양생태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산호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바다의 이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바다의 카나리아’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소범기자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연기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가 연기됐다.

국방부는 “30일 예정됐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최종 발사 준비 중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발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이날 오후 2시로 계획됐지만 발사 직전 중단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고체추진 발사체는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추진제로 활용하는 우주발사체다.

이상민기자



30일 예정됐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가 발사 직전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연기됐다.

강희만기자

정부 전남광주 800조 투자, 제주 정치권 ‘조용’... 2면 / 제주 장마 시작, 역대 세번째로 늦어... 5면

